

성동조선 정리해고 철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구조조정 중단, 28개월 무급휴직에 합의... “노동자 희생한 만큼 정부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 내놔야”

노조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지회장 강기성이 천막농성 80일 만에 정리해고를 철회시켰다. 성동조선은 지난 8월 30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간 전 직원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인사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동의를 구했다. 8월 31일 성동조선해양지회와 경상남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성동조선해양 공동관리인(채권단, 법원)이 참석해 ‘성동조선해양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노동자 생계지원 대책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약속했다.

성동조선은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 22일 법정관리 신청했다. 채권단은 법정



관리 중 생산직 80% 이상 정리해고 하는 계획을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213명이 일터를 떠났다. 현재 성동조선에 생산직 570명과 사무관리직 250여 명이 일터를 지키고 있다. 계획안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생산직 147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노조 경남지부는 성동조선 정리해고 철회와 무급휴직 시행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는 “노사가 정리해고 철회를 합의했지만 노동자들은 28개월에 이르는 희생을 감내

해야 한다”라며 “경상남도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중형조선소 대책은 여전히 구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고통을 요구하는 정부 정책으로 중형조선소를 살릴 수 없다. 노동자가 희생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중형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성동조선의 공동관리인은 인수 합병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매각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파인텍지회, 스타플렉스 본사 농성 들어가

“결정권자 김세권 대표 교섭 나와라”...7일, 고공 농성 300일 투쟁 승리 결의대회 연다

“네 번째 계절이 왔습니다. 굴뚝 위에서 300일을 보낸 노동자들, 이제는 공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 등 다섯 명의 조합원이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9월 3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와 충남지부, 파인텍지회는 9월 3

일 오전 스타플렉스가 입주한 CBS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대로 70인 파인텍 문제 해결을 위해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인텍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합섬에서 스타케미칼로, 스타케미칼에서 파인텍으로 바꾸는 과정은 모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의 작품이다. 김세권 대표

가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회사의 모든 관계자가 김세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김세권 대표는 뒤에 숨지 말고 굴뚝 위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산별교섭 쟁취, 미타결사업장 해결 광전지부 결의대회 열어

대유위니아지회,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파업 후 참가 ... 순천시 제철 관련 조합원들 달려와

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현석은 8월 29일 대유위니아 본사 앞에서 '산별교섭 쟁취, 미타결사업장 해결촉구, 2018 압단투 승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 를 열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지회 상당수가 2018년 압단협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금속노조 산별교섭 쟁취와 압단투 승리를 위해 600여 명의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대유위니아지회는 2시간 파업,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는 오후 초 4시간 파업 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순천에서 한 시간 반 거리를 달려왔다.

김현석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미타결 사업장이 26개 지회 중 20여 곳이다. 친자본 정책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회사들이 바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권과 자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책형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격려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염원을 안고 출발했으나 사법 농단 노동정책 하나 변한 게 없다. 노조 할 권리 쟁취, 적폐청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에 함께 나서자"라고 독려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 몸짓 패 '나노'의 단결 투쟁가, 파업가 몸짓 공연 이후 미타결 사업장 지회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고미경 노조 앰코지회장은 "올해는 경영이 어려워 임금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는 노조설립 이래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시추의 레퍼토리"라며 "앰코가 해도 해도 너무나 노조가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현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정준현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올해 초 최저임금 산업별위가 결정되면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라며 "각종 수당이나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을 막으려는 시추의 음모를 분쇄하고 당당히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4월 노조에 가입한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

규직지회 김경석 지회장은 "실인적 노동환경을 바꾸겠다는 지회의 투쟁으로 시추이 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주 전 실행한 파업 찬반 투표는 조합원 9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뚝뚝 뚝뚝 단결력으로 반드시 지회 요구안을 관철하고 자랑스러운 금속노조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며 생애 첫 파업을 준비 중인 신규지회의 기대와 열정을 보여줬다.

이날 대유위니아 시추는 정문을 봉쇄하고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질함을 보였다.

이원범 대유위니아지회장은 "조합원이 집회에 참석하려는데 시추이 정문을 틀어막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아래놓고 관리자가 차를 타고 정문으로 퇴근하려다 지회 간부에게 걸렸다. 이게 대유위니아의 현실이다"라며 아산에서 광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시추이 노조를 무시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원범 지회장은 "오늘 이후 투쟁 전술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지회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투쟁하는지 보여주겠다"라며 끝까지 투쟁한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물풍선으로 '산별교섭 쟁취', '미타결사업장 승리'를 상징하는 박을 터뜨리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노조, 산재 예방제도 개선 쟁취하고 143일 농성마무리

노동부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등 보장 약속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해 계속 투쟁"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받고 143일 만에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8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충실한 심의를 위한 사전 자료 제공 사업자 의무 명시 등 공정안전제도 개선 ▲현대제철 중대 재해 관련 작업중지명령 위반 적폐 관료 감사 후 징계 검토 ▲관리대상 발

암물질 확대와 관리 의무 부여 우선 추진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확대 방안 검토 ▲PU코팅장갑 사용 자제 지도 진행 등을 약속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노동안전보건담당 지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 약속을 받아들이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노동안전보건실은 "무방비로 재해 위험에 내몰렸던 노동자를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사업주가 왜곡하고 무력화한 주요 산업재해 예방제도에 노동자가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투쟁의 의미를 평가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농성투쟁은 마무리하지만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